



한인소망교회 비전

마태복음 11:28-30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Hope Church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 본당 지하	11: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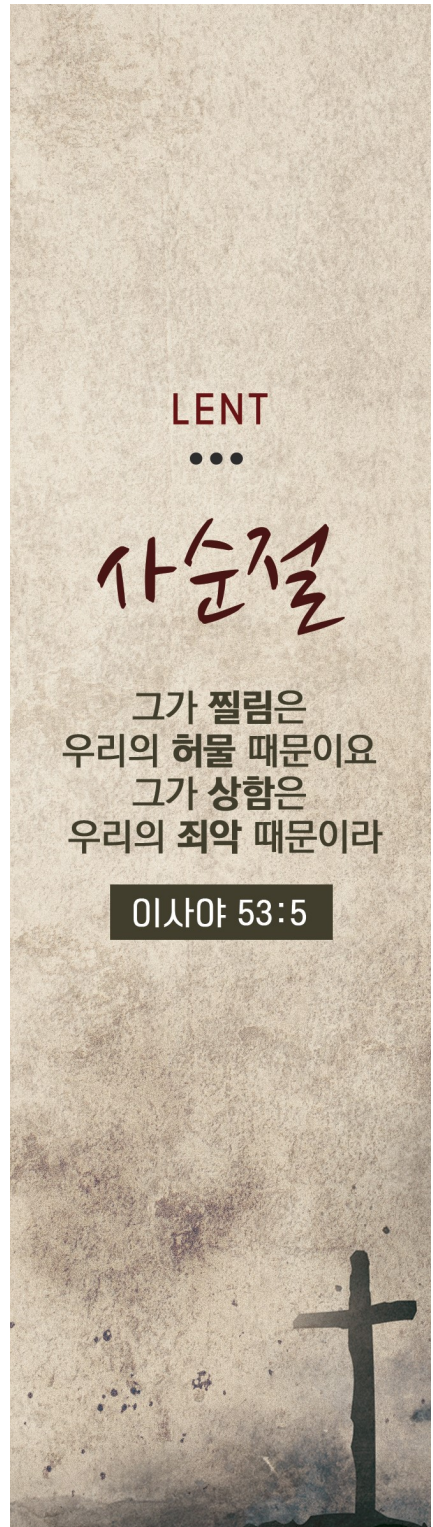
화요소망학교 / 아가페홀	11:00 am
수요대학/기도회 / 본당	8:00 pm
새벽예배 (화-토) /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Hope
Church
Staff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유초등부	(청빙중)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휴무장로	오귀록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찬양인도	황규식
지휘자/서무	박은실
반주자	노윤실 사모 (1부, 새벽) 김은화 이화니 (2부)
통역자	김예람 이화니
방송	조준한 송명신

열방을 섬기는 이들
Missionaries

태국	배종원	요르단	설총호/전경원
중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3.12.2023

믿음으로 사는 인생 (5)

1부 9 AM 2부 11:00 AM

LIVE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Agape Hall: (314)786-5018
www.hopestl.org

주일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126번 사순절 Lent (3)
참회의 기도	이사야 Isaiah 1:18
찬송	찬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같이
기도	백형수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 봉헌찬송	찬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Romans 3:9-24, NT p 243
말씀	믿음으로 사는 인생 (5) / 김성직 목사
Sermon	The Life of Believers (5)
*결단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 다같이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히브리서는 이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9:22 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그 죄를 용서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죽어야만 합니다.

(1)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음'의 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레위기에 걸쳐서 이 '희생 제사'의 법칙은 꽤 복잡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죄를 이 가축들이 대신 뒤집어쓰고 죽는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아무리 비싸고 귀하다고 해도, 사람을 대신할 정도로 값어치가 있을까요? 뭐로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짐승이 사람 '대신' 죽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기도 벅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벌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시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다른 사람들처럼 죄는 없으셨습니다.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벌을 받아야 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5장으로만 설명해 봅시다. 6절~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

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앞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1)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철에 떨어진 사람을 살리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경건하지 않은', 즉 하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뵈보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원수가 되게 합니다.

3)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4)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아드님을 대신 죽게 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벌은 예수님이 받고, 사랑은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해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이라고만 하지 않고, 왜 꼭 '피'를 보여줄까요? TV에서도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는 장면은 안 보여주려고 흐릿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꼭 잔인하게 피를 자세히 설명해서 보여줄까요?

죄가 그만큼 무서우며, 그 벌인 죽음도 무섭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12)

수요대학에서 나누었던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이운연 지음)”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9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갈라디아서 3:13]

3.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일까요?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39문답입니다.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사실 인간들이 사람을 고문하고 사형하는 방법을 너무 많이 고안해냈습니다. 십자가도 잔인한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방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으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게 하셨을까요?

성경 두 구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22, 2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 3:13)"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받을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셨음을 십자가가 잘 보여줍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처럼 싫어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징그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벌이며, 저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받으신 벌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고전 1:18).

<제10과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마태복음 27:46

1. 죽음은 죄 때문에 이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때는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는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에게는 죽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그대로 들어봅시다. 창세기 2:17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죽음'이란 이 벌을 대신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죄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값을 같이 없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6번 사순절 Lent (3)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 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5), 롬 3:9-24

<본문 속으로>

1.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습니까? (10절)

2.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20절)

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어디에 이르지 못하나요? (23절)

4. 성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나요? (24절)

[토요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쉽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주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

-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입니다.
 김기봉 장로님: 현재 키모(chemotherapy) 치료 중입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입니다.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발목과 고관절 대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PRAYER REQUESTS

[월요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화요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수요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

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목요일]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금요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라는 고백으로 먼저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죄성을 항상 돌아보고, 성결을 사모함으로 나의 부패함을 늘 기억하며,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범 죄함을, 나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사는지, 행여 여전히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I am so special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2.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신앙고백으로, 내 모든 것들이 주께로 향하는 믿는 자로서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고 배우고 제대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아직도 내 믿음 자체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고 구원해 준다고 오해하지는 않는지, 혹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없이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

Mar 12	대표기도 백형수 장로	교회청소 키르키즈스탄 (3월)	애찬담당 중국	설교번역 이화니
--------	----------------	---------------------	------------	-------------

Mar 19	대표기도 오귀록 장로	교회청소 키르키즈스탄 (3월)	애찬담당 칠레	설교번역 김예람
--------	----------------	---------------------	------------	-------------

향기로운 예물 3/5/2023

주일	\$882	건축	\$120	주일학교/유스	\$4/5
십일조	\$5,013	첫열매	\$194.40	방송문서부	\$100
감사	\$505	청년부 보조금	\$100	지진재난 구조금	\$3,900
선교	\$20	예배부 키보드 현금	\$200		
구역선교	\$0			헌금총액	\$11,043.40

헌금외 수입금

				합계	\$0
				입금총액	\$11,043.4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ttp://hopestl.org/online-donation>

1.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제헌금

튀르키예, 시리아 구제헌금: 터키튀르키예, 시리아 구제헌금 총 \$7,355 총회선교부로 보내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2. '로마서 성경필사'

예전에 요한복음 성경필사 했던 그대로 이번에는 로마서를 필사해서 세상에 딱 한 권 밖에 없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기간을 2월 첫째 주일부터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잡았습니다.

개인의 노트로 필사하셔도 되고, 교회에 필사노트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요.

3. 소망학교 사진 전시회

소망학교 주제로 사진과 그림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혹 본인의 사진이나 그림을 함께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이신웅 전도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는 4월 18(화)-23일(주) 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교우동정

사랑하는 윤경희권사님께서 3월6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구역

모로코 구역
(오귀록, 임희남 구역장)과
김영목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성영숙 (제리) 집사님
가정 위해서

교회행사

2월5일 (주)~
5월 28일(주)

'로마서 성경필사'

3월26일 (주)

1/4분기 제직회